



# 승고한 애국의 뜻 길이 전하며 조국산천은 푸르러 설레인다

봄기운이 완연한 조국강산에 뜻깊은 4월의 날과 날이 흐른다.

가지마다, 일새마다. 물물은 한껏 머금은 금을 보아도, 봄의 향운에서 새싹이 웅녀나는 푸르른 천야를 보아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우지며 4월의 봄날, 조국땅 그 어리에서 백색의 새싹과 빛나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자자족을 감회깊이 더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는 그날 물소·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숨겨진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보통강개수공사의 첫 삽을 뜨시고 문수봉에 오르시여 친히 나무를 심으시며 국토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짐작시키고 실현을 위한 투쟁을 솔직히 이어온 것입니다.』

번영하는 조국의 맑은 하늘을 이고 푸르러 설레이는 문수봉, 그 이름을 통해 물소·문수봉을 뜯을 추억이 우리 가슴을 춤려준다.

해방된 이 땅에 세 조국건설의 동 음이 우렁차면서 주제 3(1947)년 4월 6일이 있다.

이날 아침 문수봉기슭에 자리잡은 평양경제전문학교 당시 마당에서 성 대회 전생원식수기념식에 참가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과 함께 손수 나무를 심으시려고 문수봉에 오르시였다. 평양시민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문수봉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둘ぶり 사납고 잡초 무성한 비탈길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았다.

4월의 봄볕은 대지를 포근히 어루 끌고 있었지만 새싹이 돌아난 나무 속, 우짖는 산새도 없는 문수봉은 계절을 잊은 듯 활짝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꾼이

아름답다고 하여 문수봉이라고 불리 우면 산의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송 단유를 뿐만 아니라, 배를 뜯는다 하면서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타치는데로 짜랄하면 일제 농들을 문수봉에 데 행령을 짓고 방풍호들을 파면서 하늘이 보이지 않게 유풍처럼 나무를 모조리 벽어버렸다.

수년에 찾던 떡사를 들이켜보시는 듯 뒤에 손을 짚으시고 활에 화환

문수봉의 산살을 들리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정은 참으로 쓰러

고 아프시였다. 산언덕의 덤불길을

헤치시며 걸음을 끌어가는 우리

수령님의 심정에는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힘으로 일며 세우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자리잡고 있었다.

화늘을 펼쳤을것이라고, 우리는 일

제놈들이 쓰쓰게 만든 문수봉을 이를

다운 공원으로, 수도인민들의 문화유

식터로 만들어 모란봉에서와 같이 어

기에서로 나루드들이 즐겁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화늘을 펼쳤을 한 기세로 나무를

심어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명복한 생

활을 마련해 줄뿐아니라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조국산

천을 넘겨주기 위한 만대제의 사업

이며 자연을 개조하는 어려도 고장

적인 땅에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인

민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

림조성사업에서 지어야 할 원칙적문

제들을 통하여나가시였다.

이때 한 일꾼이 일을 그만하시고

말씀드렸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

미소를 짓으시며 시민들과 똑같이

일손을 멈추지 않으시고 쉬임없이 나

무를 심어나가시였다.

자신께서 드셔서 한 모금의 물마저도 부여주시는 높으신 뜻을 고

이 간직하려는 듯 문수봉에 뿌리박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봄바람에 아지지

나무를 심으시려고 땅에 삶남을

밖으셨다. 그런데 삶남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며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알며

보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봄바람에

나무를 심으려고 땅에 삶남을

밖으셨다. 그런 뒤에 삶남은 쉽게 들어갈 수가 않았다. 땅속에 있는 씨앗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지난날 나무가 무성하면 때에는 쌩이고 쌩이 땅에 땅무리 풀풀 키는 풀처럼 좋은 문수봉이 있자마자 풀풀 키는 문수봉에 풀모의 봄우리로 되여버렸다.

몇년이고 자리 놓을 때마다 풀을

막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푸른빛으로 깨끗이 깨끗이 풀을

풀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찌어린 향기로운 그 나날 얼마나

그리고 그려워했던 조국산천이던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해

제대미를 헤치고 일어서는 거리끼리

나무모를 들고오는 것을 보시고 나루

불태우면 두사들의 모습도 살삼히

안겨드는듯.

정겨운 길로 평양의 동서남북을

둘러보시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수봉은 아주 좋은 뜻에 자리잡고 있

다고 하시며 문수봉에 나루를 두기까지

면 참으로 좋을것이라고, 우리는 일

제놈들이 쓰쓰게 만든 문수봉을 이를

다운 공원으로, 수도인민들의 문화유

식터로 만들어 모란봉에서와 같이 어

기에서도 나루드들이 즐겁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화늘을 펼쳤을 한 기세로 나무를

심어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명복한 생

활을 마련해 줄뿐아니라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조국산

천을 넘겨주기 위한 만대제의 사업

이며 자연을 개조하는 어려도 고장

적인 땅에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인

민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

림조성사업에서 지어야 할 원칙적문

제들을 통하여나가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무를

심는데만 그치지 말고 심은 나무를

잘 가꾸며 보호함에 대하여 강조하

시면서 산림을 애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애국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이라고, 참

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부강한 새 조

국건설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루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힘써

야한다고 괴로워하면서 산림조성

을 잘 하여 후대들에게 계

넘겨 주자는 것 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며 절사

회적으로 나루를 많이

설득도 하시였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에는 가로수들이 출지어 푸른 일색

을 펴기 시작하였다.

정녕 번영의 새 시대를 구가하며 조

국당 방한곡곡에 『황금산』, 『보물산』

의 랙사가 펼쳐지면 보람찬 낸대들

을 우리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이지 몇 할 4월의 봄날을 소중히

세우면서 이 땅에 영원한 애국의

금수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신군령명도의 길에서 자주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시던 우리 장군님의 차례로 운

용성이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

온다. 일찍이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나루를 심으시면서 그 뒤에 그

길에 푸른 풀들이 펼쳐졌다.

제대명용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길에 푸른 풀들이 펼쳐졌다.

# 어버이수령님 펼쳐주신 황금산, 보물산의 력사를 빛내이자

백두산절세 위인들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 70돐을 맞으며

## 온 나라의 수립화, 원림화실현에 계속 큰 힘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세를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종교성 없는 대결 전에서 련전련승을 펼쳐온 것은 서둘고 난간의 흘류후과를 가시고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산림복구 전투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주체 36(1947)년 4월 6일 제2수십집세 위인들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루를 심으시며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는 숲으로 전변시킬 때에 7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날 우리 조국은 산림조성사업에서 열띠고 거창한 전진의 력사를 수놓으며 전진하였던가.

최근간 나루심 기가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친밀하게 어울려서 물의 막을 놓았고 물길기술적 도래를 그물에 갖춘 각지 양포장을 나루모생산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뿐인가, 힘농복합경영방법이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산림도지의 력제적, 집약적 리용에서도 전진을 이루었으며 새 가을 앞날에 숲에서 갖자고 보물을 거두어 봄입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가슴벅찬 현실, 끊임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도모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여 천히 나루를 심으신 때로부터 70년의 넋풀이 아로새겨졌다. 세월과 더불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에 헌신하는 사업은 경애하고 고마운 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천명한 빙도밑에 이 맹우에 황금산, 보물산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도모이다.

### || 푸른 숲에 애국의 바쳐가는 마을 ||

무와 나루로 뒤덮게 하기 위해 애국의 땅방울을 아끼지 않았다. 누가 알아주진 말았을 풍물들은 물과 근로자들은 물 한포기, 나루 한그루도 가슴에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더운 희고 끊임없이 헌주며 조국의 산들이 무너져나온 나루들이 물에 빠진 나루들이 푸르며 살았다.

김정일同志은 대리로 푸른 숲의 자구 산림감독원이었던 푸른산 푸른무는 온 나라가 다는 영광과 공로자들은 물 한포기, 나루 한그루도 가슴에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더운 희고 끊임없이 헌주며 조국의 산들이 무너져나온 나루들이 물에 빠진 나루들이 푸르며 살았다.

날로 젖어가는 푸른 숲의 향기로 산림감독원들이 일군도 일군과 근로자들은 물 한포기, 나루 한그루도 가슴에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더운 희고 끊임없이 헌주며 조국의 산들이 무너져나온 나루들이 물에 빠진 나루들이 푸르며 살았다.

최근간에만 해도 여러 산림감독원들이 푸른산 푸른무를 수여받았다. 이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밀한 산림을 세우고 지적수의 원칙에서 산림조성사업을 근기있게 해왔으며 이 나루 산림에 호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잘 세워 주었다.

기름나루, 유제원, 푸른나루를 조성하고 산림보호사업을 잘하여 온 군이 먹을 보게 한 벙금과 대공지로 헌원하고 풍물은 그 어떤 명에나 보수도 바꾸지 않았다.

꼭특히 조국의 제부를 늘이는 길에 아름다운 생의 자유를 품어내고는 시대의 전형들을 따라세우기 위한 푸른길이 밟아지는 후에 선군시대공로자

이 차량한 성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빛나는 현실로 꽂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빙도가 애인은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정을 아낌없이 바쳐 이룩한 고인의 험군후과를 가시고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산림복구 전투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담들어 가까운 앞날에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무엇보다도 수종이 좋은 나루모

들을 많이 생산보장해야 한다.

당의 험명한 빙도밑에 지난 기간 나루모생산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다. 제일 수종은 나루모생산과 과학화, 공업화, 질약화로써 있는 들판을 더 높은 쾌락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강력이

발휘되는 속에 각 지방양묘장들

에서의 나루모생산도 급속도

로 늘어났다.

연단군과 동원군, 장연군을

비롯하여 시, 군들의 양묘장들

에서 해마다 수종만 그루씩의

작물과 나루모들이 생산되고 있다

는 사실. 많은 단위의 보육원

에서 당해에 2회전 나루모생산

을 대량화해 실현시키고 있다

는 사실. 이는 우리 당의 과

학기술적 도약으로 천진성이

나루모생산에 대한 확신이





#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가치를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

이 강설에 뜻깊은 4월이 왔다. 해마다 4월이면 우리 계례의 가을이었는데 나와 민족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자애로운 사랑의 영광이 더더욱 사투리에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은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나파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심혈을 다 바치신 조국통일의 구심이시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사에는 옥계례를 통일에 국의 기치임에 끓어세우기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정직적인 헌신의 날과 날을 이어오신 가슴드께 사연도 것들뿐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밟았던 통일위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투르히 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4월을 통일에 미쳐날뛰었다.

핵전쟁발발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민족의 운명이 생사存亡의 갑작길에 놓인 엄혹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계례의 단합을 향으로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구시고 통일위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투르히 이시였다.

주체 82(1993)년 3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화로 한 일군을 몸소 찾으시였다.

아버지이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끓어세우기 위하여 정직적으로 활동하시였으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인은 일군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이 이 수령님! 위대한 장군께서는 수령님께서 작성하시는 대로인가?”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인은 일군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말했다.

민족대단결은 어버이 수령님의 한평생을 관통하는 좌우명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공포하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민족우에 신이 없고 민족우에 어떤 게 달리가니라며 민족대단결 강령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표준으로 삼았다고,

그 어떤 심연도 장벽도 뛰어넘지 못할것

이 없다는 참으로 뜻깊은 가르침이 있다.

주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조국통일의 일길에는 매우 엄중한 난판과 시련이 조성되고있었고, 이제는 반문화국 압살을 노린 범죄적인 혼수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는 한편 위험천만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놓으면서 우리를 위험을 카드로 민족의 머리우에 해선행의 길은 구름을 절게 물어왔다. 천민사대와 동족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핵전쟁발발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민족의 운명이 생사存亡의 갑작길에 놓인 엄혹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계례의 단합을 향으로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구시고 통일위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투르히 이시였다.

주체 82(1993)년 3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화로 한 일군을 몸소 찾으시였다.

아버지이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고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인은 일군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인은 일군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말했다.

민족대단결은 어버이 수령님의 한평생을 관통하는 좌우명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공포하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민족우에 신이 없고 민족우에 어떤 게 달리가니라며 민족대단결 강령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표준으로 삼았다고,

그 어떤 심연도 장벽도 뛰어넘지 못할것

이 없다는 참으로 뜻깊은 가르침이 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전민족대단결 강령은 언제나 자기 인민, 자기 민족의 힘을 굽게 믿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재끼고 모든 문제를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물어나가시는 철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계례를 통해 민족대단결 강령을 만드셨습니다. 1993년 3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계례를 통해 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서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회를 위하여 세우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리면서 철회 작성하고계시는 전민족대단결 강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대단결 강령이며 옥계례의 지향과 요구, 통일운동의 구체적 설정을 정확히 반영한 가정합의이고 현실적인 민족단합의 대장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을 내면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자는것 이었다고, 이러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조국통일의 대단결 강령으로 확장해준 대단결 강령이다.

하기에 북파 남 해외의 옥계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 강령을 퍼고민민의 운명개척의 옮바른 길을 밝힌 대원장, 『온 계례를 통일의 힘으로 부르는 회개와 단합의 대결에 원장한 남조선의 피통치배들도 외세와 암합하여 새 전쟁도 발해 동에 미쳐날뛰었다.

용은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저식 있는 사람은 저식을 내고 끈 있는 사람은 끈